

NEWS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주철현·조계원 의원, 여수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라며 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날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1면 ‘금융시장 혼풍’서 계속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89.17p(2.96%) 오른 3,103.64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46.67p(1.55%) 오른 3,061.14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빠르게 키웠다.

코스피 증가가 3,100선을 웃돈 것은 지난 2021년 9월 27일(3,133.64)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특히 국내 증시 대표 반도체주에 매수세가 몰리며 삼성전자는 4.31% 오른 6만 500원으로 마감, 지난 3월 28일 이후 3개월 만에 ‘6만전지’를 회복했다.

SK하이닉스는 7.32% 급등해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대로 올라섰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14p(2.06%) 오른 800.9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증가가 800선을 웃돈 것은 지난해 8월 1일(813.53)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24.1원 내린 1,360.2원이다.

국제유가는 급락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8월물 가격은 24일(현지시각) 오전 2시50분 약 5% 떨어진 배럴당 65.2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 11일 증가 63.54달러에 거의 근접한 것이다.

국회서 회견…“붕괴 직전…국가 차원 지원 절실”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등 4대 요구사항 제시

여수시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조계원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불황과 구조적 위기로 직면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위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주철현·조계원 의원에 따르면 여수국가산업단은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중추였지만, 최근 주요 생산업체가 가동을 중단하고 수출과 고용이 급감하면서 지역 경제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2025년 플랜트 발주액은 4747억원으로 전년 대비 78.4%나 줄었고, 플랜트 건설 노동자는 26%가량 감소했다.

여수지역 플랜트 건설노조가 지난 4월 실시한 조합원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40.7%는 실직을 경험했고, 18.9%는 여전히 실업상태라고 답했다. 27.4%는 타 지역으로 옮겨갔고, 여수산업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은 37.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부가 여수의 고용위기를 정량적 지표만으로 판단해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기자회견에서 두 의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율 등 정량적 기준만을 고집하며, 실제 현장의 고용 붕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수치를 잡지 않는 실적과 이탈, 계약만료 등의 구조적 문제를 무시한 채 형식적 기준만을 고수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18년 군산, 창원 진해구도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구조 조정 우려 등을 근거로 선제지정 사례가 있었다”며 “여수는 산업 기반 붕괴, 고용 급감, 지역경제 침체가 동시에 벌어지는 복합 위기의 대표적 사례로 반드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4대 요구사항(△여수의 고용위기지역 즉각 지정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 관련 과징금 및 징벌적 행정조치 제검토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 전환 및 국가 주도의 산업재편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금 여수를 살리지 않으면 내일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이 설 곳이 없다”며 “정부가 수치를 형식 넘어 있는 산업현장의 고통을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전남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광주·전남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는 24일 세한대학교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광주·전남지역대학 8개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 2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의 회의에는 박상철 호남대 총장을 비롯해 광주대 정미영 부총장, 조준범 남부대 총장, 이주희 동신대 총장, 윤보호 목포가톨릭대 총장, 한원희 목포해양대 총장, 최미순 세한대 총장, 서유미 초당대 총장 등 8개 대학교 총장들이 참석했다.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짓는다

국토계획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은 제외 농공단지 건폐율 80%까지 완화

정부가 침체된 농어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짓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 규모로 단독주택을 건축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도시 거주자들이 주말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기 쉬워져 현지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

농·귀촌이나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 생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와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농·어가만 지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한 규제 완화 대상 토지는 전국 약 140만개 필지로 추산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 수준과 무관하게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등 확보 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80%까지 완화한다. 농촌 마을에는 공장이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는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된다. 이곳에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설치해 마을 수입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종전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해 사업자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토지 형질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의 행위라면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 적기에 유지·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려 할 때 이전에는 반드시 주민 의견을 듣도록 했지만, 이미 의견 청취가 끝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중복 청취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시, 227명 승진 인사 단행

민선 8기 최대 규모...시민안전실장 2급으로 상향

광주시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2급 1명, 3급 2명, 4급 12명, 5급 39명 등 총 227명을 승진 의결했다. 이는 직전 인사 대비 68명 증가한 것으로, 중간관리자급인 5급과 핵심실무자인 6급 승진은 민선 8기 들어 최대 규모다.



김준영, 윤창모, 박금화

▶인사명단 13편

이번 인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재난대응·안전 강화 기조에 발맞춰 시민안전실장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민선 8기 들어 최초 2급 승진자를 배출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인사 정책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성과 중심’의 근무평정 자료를 축적했고, 이를 반영한 명부 순위를 최대한 존중했다.

여기에 시정 운영 안정성과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 연계를 위한 전문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2급 승진자인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기획력, 실행력, 소통력, 협업력을 두루 갖춘 실무형 리더로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더현대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5대 신활력 벨트, Y-프로젝트 등 지역경제 활력 창출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광주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3급 승진자는 2명으로 윤창모(관광도시과장),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서기관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한다.

윤창모 과장은 차세대산업과장, 군공항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책기획담당 등 광주시 핵심 전략부서를 두

루 거치며, 복합 정책 조정과 실현 능력을 입증한 인재로서 민선 8기 관광정책과 문화브랜딩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했다. 박금화 과장은 민선 8기 녹지·경관·건축 정책을 거치며 도시경관 디자인 도입과 녹색건축 기준 확대 등 광주 도시경관 정책 전반에 실무 기획력을 보유한 인물로, 꾸준한 성과와 안정적인 조직 운영, 대내외적 협상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밖에도 5대 신활력벨트 추진, 민생경제 회복, 재난·위기 대응 역량 강화, AI 기반 미래산업 성장, 문화·공공시설 확충, 5·18 광주정신 계승 행정 등 민선 8기의 전략 과제를 실행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12명이 4급(서기관)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상윤 인사정책관은 “이번 인사는 민선 8기 3년 동안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 방향에 발맞춰 광주 발전을 견인할 인재 중용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인사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작
사기꾼 브로커